제10강 르네 마그리트 : 사유 충돌을 통한 이미지 사물의 생성 I

(1교시-0806-01)

※ 르네 마그리트(René Magritte, 1898-1967, 벨기에) : 막스 에른스트, 살바도르 달리 와 함께 초현실주의를 대표.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6년부터 1930년까지 파리에 체류, 시인 P. 엘뤼아르 등과 친교를 맺고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가했다.

◎ 외적인 사물의 질서와 내적인 상상의 질서

▶ 일상적 사물의 기묘한 재결합

- 주로 개인적인 환상을 그린 달리(그림,1-1)와는 달리, 실제의 세계에서 가져 온 일상적인 사물들을 묘사. (기묘한 방식을 통해 재결합, 관객의 사유를 충분히 이끌어 낸 뒤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인다.)
- 일상적인 질서에 사로잡힌 사유와 그것을 깨뜨리는 사유간의 충돌. 그 틈에서 태어난 회화.

* 그림 1-2 <사물의 교훈>

- 고정관념을 깬다.
- 그림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유의 틀의 깬다는 철학적 의미를 함축.
-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.(가시적, 비가시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)

▶ 상상의 시선을 통한 내적인 세계의 탐구

- 고정된 의미의 세계에서 의미가 폭발해버리는 세계로의 확장.
- 현실 세계로부터 메타-현실 세계로의 초월.
- 종속된 이미지의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의 세계로의 이전.
- 목적론적인 체계에서 맹목적 체계로의 상승.
- 기지의 세계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감.

⇒ 회화 자체가 그대로 의미가 되는 세계. 혹은 그러한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.

◎ 확장된 환유와 환유적인 대치(代置)

* 그림 1-3 <대화의 기술>(1961)

▶ 환유의 사용

- 잎사귀 하나로 나무를, 기둥 하나로 건축물을 표현.

(※ 환유: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)

www.artnstudy.com

→ 나무의 형상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는 잎사귀를 똑바로 세워 그 자체로 나무를 표현. 공간적인 관계를 이용해 거대하게 만든다.
- '대화의 기술'이라는 제목의 상징성
→ 남녀의 성적인 대화
→ 환유적인 기법에 의한 대화술 혹은 글쓰기 기법을 회화적인 이미지로 나타냄.
⇒ 대화의 내용이 아닌 형식을 표현. 그러나 그림자체로 웅장한 신비를 드러낸다. (사물 자체가 지니는 자가적 변형 생성의 경지)

(2교시-0806-02)

▶ 이미지의 독자성

- 현실사물로부터 어떻게 이미지가 독립하는가를 보여줌.
- 통상적인 배치와 질서를 깨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결합. → 현실적 이미지의 타파. (신비의 공간 연출)
- 칸트가 말한 물자체와 선험적 통각이 이미지 자체의 독립적인 존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.
⇒ 회화사에서의 고전적 재현의 문제와 연루됨. 그 재현의 틀을 깨고 이미지의 독자적 존재의 확립을 추구한다.

◎ 이종 배합의 결합

* 그림 2-1 <자연의 은총>(1963)

※ 이종 배합 : 서로 모순적인 두 성질을 완전하게 결합해 전혀 새로운 이미지의 세계를 열어 보임

- 새 +나뭇잎
- 날아다니는 것과 땅에 붙박여 있는 것의 결합 → 나무는 새를 통해 날아가고 새는 나무를 통해 땅으로 내려앉는다.
- 친밀관계와 모순관계의 결합.
⇒ 이종 배합적인 파괴를 통해 아름다움이 생성됨을 보여줌.

* 그림 2-2 <설명>(1952)

- 맥주병 + 홍당무
- 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초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한 공간의 개념.
⇒ '홍당맥병'과 같이 홍당무와 맥주병도 본래 초현실적인 것이다. 즉,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현실적인 사물들은 본래 '홍당맥병'처럼 기이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다.

* 그림 2-3 <붉은 모델>(1935)

www.artnstudy.com

- 발 + 구두
- 철저히 상호의존적인 발과 구두의 관계를 표현.
- 이것의 명칭은 '구발' '발두' 등 의미 없는 이름을 붙인다. 즉, 고유명사화 된 사물들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지니게 된다.

* 그림 2-4 <강간>(1945)

- 기발하다. (가벼운 느낌)

* 그림 2-5 <심금>(1955)

- 의미의 진동
- 사유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이미지를 보여준다.
→ 창조적 이미지의 생산

www.artnstudy.com